

#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신경쇠약증과 언어적 심미성에 관한 일 고찰

김 용 희\*

## 차 례

- |                          |                           |
|--------------------------|---------------------------|
| I. 일제하 근대자본/신체/신경증       | IV. 근대 지식으로서의 의학과 질병의 심미성 |
| II. 신경증의 유행과 지용 시의 불안 상징 | V. 결론                     |
| III. 근대의 '시간-시계', 불안과 공포 |                           |

## I. 일제하 근대자본/신체/신경증

이 글은 정지용 시에 나타난 근대적 주체와 신경증의 연관성, 근대적 자아의 주체형성과 관련된 신경쇠약과 언어의 문제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정지용 시에 대한 평가는 김기림의 평가, 즉 '시각적 이미지'를 발견한 '최초의 모더니스트'라는 시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실제 정지용 시는 당대 시 중에서 새로운 감각과 회화성이라 명명할만한 사물의 감각적 탐구와 의식을 보여주었다. 관념과 경험을 이미지의 물질성과 감각으로 대체하는 이미지즘의 수사학은 사물의 감각

---

\*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적 현상을 넘어 새로운 시어의 혁명이라 할만한 징표가 된다. 정지용의 시는 후기시 <백록담>에 가서 '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동양적 정신세계로 귀착한 전통주의라는 연대기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30년대 후반 '文章'지와 관련되어 지용은 '전통'과 '근대'라는 이중적 미의식을 동시에 성취한 시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1)</sup>. 그러나 실제 초기 <카페프랑스>에서 보여주는 피식민주체 유학생 지식인의 불안정한 타자의식과 결핍감은 후기 시편 <백록담>으로 나아가서도 여전히 여진처럼 잔존해 있었던 바 이와 같은 그의 불안의식<sup>2)</sup>은 그의 후기 산문 시편 <호랑나비>, <삼사리>, <盜掘>, <禮裝>, <나비> 등에서 긴장감과 불안의식으로 나타난다<sup>3)</sup>. 정지용 시의 불안증은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자체의 근본적 모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같은 의식의 전개는 단순히 '미시적 사실주의' '무사상의 기교주의'라는 기존 이미지즘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정지용 시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다. 지용 시가 사물의 단면과 이미지의 즉물성을 넘어서 사상성, 사회성을 담보하는 당대지식인의 '윤리성'으로 사회현실을 상징화하고자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sup>4)</sup> 시는 지용의 말대로 "생활과 사상성"<sup>5)</sup>을 지녀야

1) 이선이, 「정지용 후기시에 있어서 전통과 근대」, 『우리문학연구』 제21집, 우리문학회, 2007.2.

2) 이에 대하여 신범순은 정지용 초기시의 자아를 '헤메이는 주체'로 언급한 바 있다.(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메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그 외 이형권, 「정지용 시의 '떠도는 주체'와 감정의 차원-시적 자아의 이국정조와 슬픔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1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6. 줄고, 「정지용 시의 데카당티즘과 지적 허무」, 『정지용 시의 미학성』, 소명출판, 2004. 참조.

3) 이에 관한 논의로 사나다 히로코의 논문은 매우 의미있는 논문이다.(사나다 히로코, 「鄭芝溶 후기 散文詩의 象徴性과 社會性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제10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6.)

4) 실제 지용은 “『백록담』을 내놓은 시절이 내가 가장 정신이나 육체로 피폐한 때다. 여러 가지로 남이나 내가 내 자신의 피폐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었겠으나 결국은 환경과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친일도 배일도 못한 나는 山水에 숨지 못하고 들에서 호미도 잡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는 바 있다. (정지용, 『조선

하고 “위축된 정신이나마 정신이 조선의 자연풍토와 조선인적 정서 감정과 최후로 언어 문자를 고수”해야겠기에 지용은 “시를 쓸 수 없는 정세하에 무위칩거하기”보다 시를 써서 “조선시의 悠遠한 기준”을 세우길 원했다. “조선시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신변의 협위를 당하게 되”<sup>6)</sup>는 시절 식민지 지식인의 갈등과 우울은 검열과 탄압을 피해 시 텍스트 안에서 숨겨진 상징과 애매함, 병치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니 후기 시편에서 보여주는 강한 상징성들은 그 예증들이라 할 수 있다. 지용은 프롤레타리아 예술파처럼 견고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 그의 시에서 민족적 정서나 사회현실성은 ‘서정적 징후’처럼 내재하게 된다. 이를테면 “첫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걸에 山 길 百里를 돌아 西歸浦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힌 송아지는 움매-움매-울었다. 말을 보고도 登山客을 보고도 마고 매여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말길 것을 나는 울었다.”(<백록담>) “이말은 누가 난줄도 모르고/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말1>)에서 나타나는 ‘고아 콤플렉스’를 환기해볼 수 있다. 이와같은 불안증은 지용 시에서 일종의 모더니즘적 자의식과 내면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감각’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의 근대 ‘상징성’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일본 도시샤 대학으로 유학 간 정지용은 이미 식민지 본토에서 <카페프란츠>의 극적인 무기력과 자아 분열의 혼란 속에서 “오오, 이국종강아지야/내발을 빨아다오/내발을 빨아다오.”라고 토로한 적이 있다. 근대적 일상에서 ‘카페’공간은 근대성의 경험적 징후라 할만한 근대적 ‘멜랑콜리’를 체험하는 공간이었던 바 식민지 지식인은 유학시절 비로소 도시적 삶의 아이러니를 내재화하게 된다. “子爵의 아들도 아모

---

시의 반성, 『문장』 27호, 1948.10. “정치성없는 예술까지도 일제 극악기에 이르러 고갈하여 버리고 일부 절조 상실자들이 자진하여 <국민문화파>적 강권에 협력함에 따라 조선시는 암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5) 정지용, 『정지용 전집 2:산문』, 민음사, 2003, 351쪽.

6) 정지용, 위의 책, 350~351쪽.

것도 아”닌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프”기만 한 시인은 자기연민의 결벽증과 파편화된 존재로서의 우울로 극단적 신경증의 가학과 피학의 토로를 한다.

정지용 시에서 이러한 신경 쇠약적 징후는 근대지식인들의 특징적 감수성의 극단으로 등장하는 바 병리적 증상으로서 이것은 시 텍스트 상에서의 ‘신경증적 히스테리’의 ‘상징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하 조선사회는 이미 “기묘하고 뒤틀린 근대”<sup>7)</sup>라는 병리성과 이상리가 심화되던 시기였고 시적 정서에는 병적인 불안의식이 억압체험으로 내재화되어 있던 때였다. 강제되고 수입된 문화의 과정에서 도시적 삶과 일상은 개인을 분절하고 고립시켰으며 소외와 주체 분열은 근대초기 문화적 개인의 상황에서 거의 보편적인 수사가 되었다. 신경쇠약은 문명과 근대성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하 육체가 갖게 되는 정신적 과정으로 기능했다. 대중문화와 산업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변천을 대하는 인간의 불안감은 질병의 양태를 촉발시킨다. C. 한스컴은 자본주의하 인간 육체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의 발생으로 억압과 전환이라는 정신적 과정을 겪는 것을 역사적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다.<sup>8)</sup> 식민지 지식인들은 식민지 근대상황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근대의 이중적 체험이 질병(병리)의 내적 원인이라면 일제 침략과 그로 인해 겪는 억압이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계급적 민족적 격차의 어두운 현실과 그 현실에 내재한 모순들의 대립은 모더니즘문학에서 병리적 특징”<sup>9)</sup>으로 드러난다.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문학에서 보여주는 복합적 병리적 구조는 이에서 비롯된다. 이상의 시와 소설, 박태원 소설에서 나타나

7) Massal Burman, 윤호병, 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212~347쪽 참조

8) C.Hanscom, 손광수 역,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박태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9집,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152쪽 참조

9) 한만수, 『모더니즘문학의 병리성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2, 58쪽.

는 공간의 폐쇄와 순환 반복성, 일탈과 고립감, 이상 징후와 퇴폐, 성도착 등의 방식은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일제 침략하의 사회 병리적 상황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징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경쇠약’은 개인적인 것과 근대성이 지닌 모순, 그리고 압박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상으로 재현되고 있다<sup>10)</sup>. 식민지 문학에서 신경쇠약 증후는 신체/정신, 근대 매혹/환멸, 식민/탈식민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질병적 모델이자 물질적 은유인 것이다. 식민지 시대 문학작품에서의 신경증 병리적 현상은 프로이드 사상에서의 신경증(the neuroses), 히스테리(hysteria)와 구분되는데<sup>11)</sup> 이는 식민근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강요된 근대체험, 다양한 계급, 민족의식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전유<sup>12)</sup>되는 것과 관련있다. 식민지문학에서 리얼리즘이 외적 존재들의 갈등에 몰두했다면 모더니즘 문학은 내적 자아의 혼란과 갈등, 자아 분열현상에 집중하게 된다. 정지용 시의 모더니티는 자아로의 침잠, 그로 인한 내면적 개인의 보존과 해체라는 측면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정지용은 근대문명지식에 대한 당대(1920,30년대) 담론으로서의 신경증에 대하여 ‘지적

10) C. Hanscom, 손광수 역, 위의 논문, 151쪽. 프로이드와 브로이어는 “순수한 형태의 히스테리나 강박 신경증은 보기 드물고 보통은 불안 신경증과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증상은 다양한 요인에서 나올 수 있음을 말한다.

11) 프로이드 사상에서 신경증과 히스테리는 도시적 삶과 사회적 진보, 교양있는 지성인들과 성적인 과잉 등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질병이다.

12) 신경쇠약에 해당하는 증상들에는 “심리 통제 결핍”, 무의식적 발화(하나를 말하고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경우, 말 실수 등), 공포증, 신경성 소화불량, 피로, 그리고 “남성 질병”(유정(遺精), 발기부전, 전립선 요도의 과민)으로부터 두피의 압통, 동공 확장, 두통, “이명 현상”, 과민성 증상, 무기력, 얼굴을 자주 붉힘, 이와 잇몸의 압통, 마약 욕구, 피부 건조, 삼키기 어려운 증상, 복통, 기후 예민, 국소적 마비, 간지러움, 하품 그리고 동안(the appearance of youth)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George M. Beard, *A Practical Treatise on Nervous Exhaustion (Neurasthenia): Its Symptoms, Nature, Sequences, Treatment* (New York: William Wood & Company, 1880, 12쪽). C. Hanscom, 손광수 역,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박태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9집, 현대문학연구학회, 154~155쪽에서 재인용)

반응'으로서의 신경증을 언어화 한다. 지적 반응으로서의 신경증은 시 안에서 은유와 상징으로 암시되는 바 그것은 상징적 애매함, 언어의 파편화, 자아의 분절과 불일치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는 정지용 시의식의 사회성과 윤리성에서 비롯된다. 지용은 신경증 자체보다 신경증을 염두에 두고 식민근대현실에 대한 타자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신체적 강박, 의식의 신경증으로 표출된다. 강박적 요소는 모더니즘 시의식에서의 불안과 연결되면서 '근대적 시언어의 감각'과 '심미성'을 확보하는 미학적 근거가 된다. 정지용 시에서의 신경증적 은유와 상징은 당대 신경증이라는 의학적 징후에 반응하면서 그러한 의학적 징후를 시적 전략으로 삼고자 한 결과였다. 지용은 식민지 근대현실에 대한 사회의식을 전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에 대한 전략적 분열은 식민지 근대에 대한 일종의 '노이즈'로서 현실에 대한 저항지점을 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 II. 신경증의 유행과 지용 시의 불안 상징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의 탄생, 문명의 제 현상들은 신경체계를 압박하는 주요인이다. 현대성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주체가 가치와 사회적 공간의 변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적 유동과 근대 도시 안에서의 무수한 소음과 풍경들에 혼돈을 느낀다. 이를테면 전동차의 종소리, 버스가 움직이며 내는 소리와 속도, 군중이 뛰벽거리며 발을 스치며 걸어가는 소리, 노동기계의 작동음 소리 등은 신경력을 소진시키며 결핍시킨다는 것. 실제 조선에서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 동안에 신경쇠약에 대하여 씌어진 글들이 있다.

현재문화에 눈이 열리어 복잡한 사정을 가진 우리들은 필경은 신경쇠

약 병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실질을 더하게 하여 신경쇠약이 점점 늘어갈 뿐입니다.<sup>13)</sup>

신경쇠약은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포괄적인 증상이며 주의산만, 피곤, 공포증 등으로 구성된다. 신체증상, 심리적 증상에는 기억능력에서 나타나는 단절, 기억의 오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의 증가 등이 있다. 신경쇠약은 도시에서 교육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성행했다. 식민지 지식인청년에게 삶에 대한 무기력, 도시적 삶을 타락의 지점으로 보면서 느끼는 불안감, 근대적 세속화에 대한 존재적 공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 당시 조선사회는 신경쇠약에 대한 담론이 무성했던 바<sup>14)</sup> 그것은 “동양”이 근대적 생활에 동반하는 “서구적인”도덕과 제도 형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과 관련있다. 즉 신경쇠약은 개인과 사회 체제 간의 관계, 식민과 근대체제라는 상황과 연관되면서 ‘전환의 심리적 메커니즘으로부터 증상이 발생하는 과정의 복잡성’과 함께 나타난다.

신경쇠약은 문명진보에 대한 지식인의 과민증세이며 신문물을 수혜받은 자의 육체적 징후이다. 계몽기 춘원은 <문사와 수양><sup>15)</sup>에서 “문사라 하면 ‘학교를 졸업하지 말 것’ ‘무론 술, 붉은 술에 탐닉할 것’ ‘두발과 의관을 야릇이 할 것’ ‘신경쇠약성 빈혈성 용모를 가질 것’ ‘불규칙 불합리한 생활을 할 것’ 등의 속성을 가진 인물”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근대문학기에 춘원이 바라던 지사적 청년은 차츰 문사적 청년으로 변모중이었으니 ‘문사적 청년’의 특징은 ‘데카당적인 우울’과 림펜의식,

13) 「신경쇠약은 봄철에 심하다-병 되는 원인을 잘 살피고 속히 퇴치해야 된다.」

「동아일보」, 1929.4.5.(3)2.

이어 의학전문가인 안중길의 「신경쇠약은 어떤 병인가-특히 청년기에 많은 영적 신경쇠약에 대하여」(「동아일보」, 1934.2.26.) 글이 연재되었다.

14) 안중길, 「신경쇠약은 어떤 병인가」, 「동아일보」, 1934.2.28,

안중길, 「신경쇠약은 어떤 병인가」, 「동아일보」, 1934.3.4.

15) 이광수, 「문사와 수양」, 「창조」 8호, 1921.14쪽.

그리고 신경쇠약성 빈혈성 용모를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 정지용 시 <카페 프란츠>에서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프”다는 토로는 빈혈성 용모에 대한 신체적 은유이자 청년지식인의 육체적 표식이기도 했다. 창백 하리만큼 흰 피부, 섬세하고 긴 손가락, 그리고 썩한 두 눈 등은 모두 신경쇠약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젊은 남성 가운데 두드러지는 증상이다. 이는 무능력과 허약한 체구(마치 폐렴에 걸린 환자처럼)로서 타인과의 교류를 차단한 채 심리적 신체적 신경증을 앓는 근대 지식인 청년의 초상이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지용 시의 사회성은 일제 현실의 압제 속에서 텍스트 표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신경증의 신체적 증상의 발생 과정은 ‘억압’(repression)과 전환(conversion)이라는 정신적 과정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지용 시에서 상징성으로 함축된다.

할머니  
무엇이 그리 슬어 우십니까?  
울며 울며  
鹿兒島로 간다.

해여진 왜포 수건에  
눈물이 함축,  
영! 눈에 어른거려  
기대도 기대도  
내 잠못들겠소.

내도 이가 아퍼서  
故郷 찾아 가오.

배추꽃 노란 四月바람을  
汽車는 간다고  
악 물며 악물며 달린다.

<汽車> 전문

‘고향’에 대한 발견이 근대이후에 와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이미 익숙하다. 근대와의 접촉을 통해서 비로소 고향과의 분리가 가능해졌고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었다. 근대도시의 탄생은 곧 농촌 고향의 탄생과 발생지점을 같이 한다. 향토를 기억하는 것은 민족을 집단적 일체감으로 상상, 확인하는 방식이며 또한 농촌은 한없는 심미적 대상으로 포착되며 상상되는 민족 윤리적 거점이 된다.<sup>16)</sup> 정지용이 일본유학시절 쓴 <향수>(1927)에서 궁핍한 농촌현실이 서정적 아름다움으로 압도되는 자족적 공간으로 상상되어지지만 실제 조선으로 돌아와 발견하게 된 현실은 가혹한 식민지 현실에서의 조선농촌이었다.(“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메마른입술에 쓰디 쓰다//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故郷>1932)

<汽車>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할머니의 울음, 그것을 보고 있는 시적 화자의 불면, 이가 아픈 통증, 노란 배추꽃 사월바람의 상냥함과 대립되는 “악 물며 악물며 달리”는 기차의 울분 같은 속도가 전개된다. “내도 이가 아퍼서/故郷 찾아가오”에서 ‘이가 아픈’ 증상은 신체적 통증이자 심적 서글픔에 대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상징적 통증은 강박적 신경증으로 나타난다.

우리 읍바 가신 곳은  
 해님 지는 西海 건너  
 멀리 멀리 가셨다네.  
웬일인가 저 하늘이  
피 스 빛보담 무섭구나!  
날리 났나. 불이 났나.

<지는 해> 전문

16) 오성호, 「향수와 고향, 그리고 향토의 발견」, 『한국시학연구』 7호, 한국시학회, 2002. 168~171쪽 참조.

2음보격 6행의 민요형식으로 된 동시적 구성이다. 어린 누이를 시적 화자로 설정하는 방식은 지용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다(<엽서에 쓴 글>, <무서운 시계>). ‘옵바’는 근대 주체이자 청년의 상징이다. 근대 이후 부모-자식의 수직적 위계는 오누이관계라는 상대적 평등, 수평적 청년적 연대의 관계로 치환된다. 아들과 딸이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 질서를 수호하는 부모와 가문의 논리에서 벗어난다. 어린 누이와 오빠의 관계는 구시대를 거부하는 근대적 양상, 자본과 과학과 기차가 질주하는 등질적 근대공간에서 발명된 근대적 관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임화 시 <네거리의 순이> <우리 옵바와 화로>에서 오빠-누이의 구조는 단순히 혈연적 오빠 여동생의 관계가 아닌 조국-청춘, 민족-근대로 이어지는 일종의 청년적 연대로서의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 ‘옵바-누이’의 연대는 ‘청년=조국’의 맥락적 사실을 담보한다. 여기서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정지용<海峽>)이라는 등가가 형성된다.

그런 점에서 <지는 해>에서 “우리 옵바”는 다분히 정치적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옵바”는 “멀리 멀리” 떠나갔고 그 떠나 간 곳은 “서해 건너”(상해, 임시정부)이다. 지는 해의 붉은 빛은 서해 건너간 오빠 있는 곳에 대한 상징적 두려움과 겹쳐진다. ‘붉은 빛’을 보며 시적 화자는 “피 빛 보담 무섭구나/날리 났나. 불이 났나.”라는 감각과민(emotional keenness)의 공포에 휩싸인다. 감정의 억압보다는 부정과 불안, 강박 신경증적 심리를 ‘피빛’ ‘난리’ ‘불’ 형상으로 드러낸다. 불안 신경증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상징적 전제만을 암시한 채 주체를 압박하는 위협과 함께 불안의 한 기표로 이미지화된다. 4음절 2음보의 규칙적 리듬의 민요형식은 어린 누이의 극도의 공포감을 강화한다.

17) 이경훈, 『오빠의 탄생-식민지 시대 청년의 궤적』,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3, 50~55쪽 참조.

불 피여으르듯하는 술  
한숨에 키여도 아아 배곯아라.

수저본 듯 노힌 유리 컵  
바작 바작 씹는대도 배곯으리.  
(중략)  
빨어도 빨어도 배곯으리.

술집 창문에 붉은 저녁 해 살  
연연하게 탄다. 아아 배곯아라.

<저녁해 살> 중에서

붉은 저녁 햇살은 위협스러운 문명 진보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지용에게서 신경쇠약은 붉은 것들의 물질적 환기와 약화된 신경 체계를 짓누르는 결핍감으로 다가온다. “불 피여”놓은 듯한 술을 “한숨에” 들이“키여도” 시적 화자는 배고프다고 말한다. 놓여 있는 “유리 컵”을 “바작 바작 씹는대도” 배고프다고 말한다. 유리컵을 바작 바작 씹는 강박증 혹은 억압과 전환의 메카니즘, 육체적 증상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공복감으로 드러난다. 술집 창문에 붉은 햇살이 “연연하게” 타는 것을 보며 시인은 강박적인 공복감을 느낀다. 정지용은 정신적 혼란을 특정한 마음의 이미지나 암시, 붉은 해, 붉은 노을, 붉은 열을 내는 술의 물질성으로 매개하면서 그의 불안증으로서 심리적 메카니즘을 드러낸다. 결국 불안정한 정신적 결핍감은 정지용 시에서 심리적 상징으로 물질화되며 감각화되고 있다.

### Ⅲ. 근대의 ‘시간-시계’, 불안과 공포

오후가 가시고 난 방안에

숫불이 박꽃처럼 새워간다.

산모루 돌아가는 차, 목이 쉬여  
이밤사 말고 비가 오시라나?

망토 자락을 너미며 너미며  
검은 유리만 내여다 보시겠지!

오편가 가시고 나신 방안에  
時計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

<무서운 時計> 전문

<지는 해>에서 보여주는 시적 화자의 불안과 강박증은 오편가 떠나간 뒤 방안 공간의 밀폐감, 공포감으로 다시 반복된다. 하얗게 점점 익어가는 숫불의 불길은 의식의 가열화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어린 누이의 홀로 남은 외로움은 숫불이 점점 하얗게 사그라들 듯 두려움과 공포로 변해간다. 공포와 두려움은 ‘목이 쉬 자동차 소리’ ‘밤에 오는 비’ ‘망토 자락’ ‘검은 유리’ ‘무서운 시계소리’라는 어둡고 적막한 매개로 상징화된다. 오편가 떠나가고 난 상실감 속에서 숫불은 점점 사위어진다. 검은 유리차창을 내어다 보는 망토입은 오편의 모습과 대비해 홀로 남은 누이는 재깍거리는 시계소리에 자지러질 듯한 공포감을 느낀다. 흔히 어두워지는 방안은 시적 자아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공간을 상징화한다. ‘방안/바깥’, ‘내면/현실’, ‘누이/오편’사이의 긴장적 대립구도는 시계의 재깍거리는 소리의 규칙성으로 나타난다. 오편가 떠나간 방안은 지나치게 고요하여 시계소리의 초침소리가 방안 전체로 퍼지면서 자의식의 극단적 가열(沸騰)을 환유한다.

<무서운 시계>도 <지는 해>와 마찬가지로 어린 누이를 시적 화자로 설정하면서 동화적 동시 운율을 동반한다. 하지만 2음보 3음보의 반복으로 진행되는 시의 리듬감은 오히려 시계음의 규칙적 동질성과 호흡을

맞추면서 심리적 흡착과 단말마적 고립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서마 서마 무서워”는 시계소리의 무서움을 의성어(의태어)로 직접화시키면서 지용 시어의 참신한 조어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상실감에 대한 강박적 두려움은 시계초침소리와 같기도 하고 무서움에 떠는 모습같기도 한 “서마 서마”라는 독특한 부사어<sup>18)</sup>로 첨예한 자의식적 공포를 물질화, 감각화한다.

근대성의 불안함과 불안정의 윤리는 근대체험의 가장 중요한 발현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심리인 ‘불안정의 윤리’야말로 오히려 근대의 불협화과정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려는 자의식의 윤리라 할만하다.

시계소리는 과학기술이 보장해주는 낙관과 진보에 담겨있는 균질화된 삶의 명확한 징표로 존재한다. 도시 청사 주위에 설치된 시계탑은 상인의 시간이 도시의 시간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시계탑은 도시의 권력과 결부된 새로운 시간성의 상징으로 부상한다. 그것은 전근대의 종교적 시간, 농경사회의 자연적 시간이 아닌 또 하나의 인위적 시간이 도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시의 시간이 된다<sup>19)</sup>. 그야말로 근대적 시간성은, 사람들마다 갖는 삶의 고유성과 이질성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리듬에 대한 강요 내지 지배라 할 수 있다.

시간의 통제와 강제는 정지용의 시 <황마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네거리 모퉁이에 씩 씩 뿔아 올라간 붉은 벽돌집 탑에서는 거만스런 XII 時가 避雷針에게 위엄있는 손가락을 치여 들었소. 이제야 내 모가지가 쫄 뺏 떨어질듯도 하구료.” 도시 네거리를 지키는 간수처럼 “붉은 벽돌집” 시계탑은 통금 12시를 알리며 시적 화자를 통제 감시한다. “위엄있는 손가락을 치여 들”자 “내 모가지가 쫄 뺏 떨어질 듯” 시인은 위축된다. 시계를 통해 개체를 관리 감독 감시 규율하는 권력적 기계는 시간을

18) 류소영, 「정지용, 무서운 시계에 대한 한 읽기」, 『시와시학』 통권18호, 시와시학사, 1995년 여름호, 73쪽

19) 이진경, 『근대적 시, 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55쪽.

교환, 분배, 소비 생산함으로써 우리 삶을 자본주의의 화폐적 형식과 결합하게 한다. 인간 신체 행동은 시간적 등가성으로 구분되면서 노동과 비노동의 시간을 구분하고 생체적 리듬의 분할을 균질화한다. 그러나 시인은 “마음 놓고 슬 슬 소변이라도 볼까요.” 라고 말하며 시계의 위엄 있는 감시에 반항하기도 한다.<sup>20)</sup> 도시의 시계탑은 그야말로 존재의 보편적 형식이 아니라 공동 삶의 리듬 자체를 형식화한다. 공동 삶의 리듬이 거꾸로 사회적 시간의 선택적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계적 시간은 자본주의 노동, 일상의 문제, 주체적 개인의 자율제한과 관련되어 자신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엄밀한 감시의 조감도를 만든다. 정지용 시에서 시계와 관련된 강박증은 다음 시에서 극단적 신경증으로 도래한다.

한밤에 壁時計는 불길한 啄木鳥!  
나의 腦髓를 미신바늘처럼 쫓다.

일어나 쫓알거리는 <時計>를 비틀어 죽이다.  
殘忍한 손아귀에 감기는 간열핀 모가지여!

오늘은 열시간 일하였노라.  
疲勞한 異智는 그대로 齒車를 돌리다.

나의 生活은 일절 憤怒를 잊었노라.  
琉璃안에는 설레는 검은 꿈 인양 하품하다.

꿈과 같은 이야기는 꿈에도 아니 하린다.

20) 정지용 시에 나타난 문명과 근대의식에 대한 논문으로 김명옥, 「정지용 시에 나타난 현대문명과 도시성」, 『비평문학』 제 12호, 한국비평문학회, 1998.7.) 이수정, 「정지용 시에서 ‘시계’의 의미와 ‘감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2.12.)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수정은 정지용 시에 나타나는 부정적 근대성의 은유로서 시계이미지를 주목하면서 정지용 시의 감각문제를 다루고 있다.

必要하다면 눈물도 製造할뿐!

어쨌던 定刻에 꼭 睡眠하는 것이  
高尚한 無表情이오 한趣味로 하노라!

明日!(日字가 아니어도 좋은 永遠한 婚禮)  
소리없이 옮겨가는 나의 白金체펠린의 悠悠한 夜間航路여!

<時計를 죽임> 전문

정지용 시에서 시계,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여기서 시간은 근대화의 속도와 균질적 규율 체계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한밤 벽시계는 정각시간을 알릴 때마다 탁목조처럼 딱따구리 소리를 낸다. 시계는 화자의 “腦髓”를 “미신바늘처럼 쫓”는다. 새의 부리로 머릿속을 찡는 듯한 의식의 과민증은 일어나 “종알거리는 <時間>을 비틀어 죽이”는 과격한 정신적 분열에 사로잡히게 한다. 근대인의 하루는 ‘시간’으로 화폐화 되고 형식화된다. 시인은 “오늘은 열시간 일하였노라”라고 말한다. 근대적 시간으로 조율되는 시인의 하루는 신경증과 피로감으로 온종일 툽니바퀴를 돌리고 있다(“齒車를 돌리다”). 시인은 “憤怒”마저 잊었다고 말하고 “琉璃안에 설레는 검은 곰 인양 하품”하는 권태로운 포오즈를 취한다. “정각에 꼭 睡眠하”고 “필요하다면 눈물도 製造”하는 “高尚한 無表情”의 근대인, 시인은 시계라는 광물성, 근대적 기계 툽니바퀴에 끼어 함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계의 치차를 돌리는 근대적 시간에 윤택된 자아이다.

기술적으로 시계의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태엽이었는데 그것은 힘을 축적했다가 조금씩 풀어나가는 기계라는 의미에서 탈진기(脫進機)라 하기도 했다. 밤 시간 벽시계의 딱따구리 소리에 잠을 깬 시인은 시계로 말미암아 태엽의 힘이 풀리듯 돌아가는 고된 근대적 피로와 탈진(탈진)을 맞는다. 시간은 자본주의의 화폐적 형식과 결합하여 우리의 삶을 좀 더 정확히 좀 더 빨리, 좀더 길게라는 구호로 몰아붙인

다.21) 빠름은 신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나 관성의 힘으로 ‘속도의 파시즘’을 만들어낸다. 밤 시간 움직이는 시계소리는 탁목조(딱따구리)의 소리처럼 예민한 신경을 쫓는 듯 투통을 불러온다.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화자는 “미신 바늘”(미싱바늘)이 뇌를 쫓는 듯한 극단적 두통에 시달린다. 똑딱거리는 소리는 시간의 균질화와 속도와 진행을 강박하는 규율의 권력체가 된다 “나의 白金체펠린은 한 밤에도 “소리없이 옮겨가는” “悠悠한 夜間航路”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탁목조-초침소리-미신바늘’ ‘시계의 움직임-야간행로’와 같은 시적 은유가 발생한다. <時計를 죽임>은 근대적 시간의 기계적 반복, 균질한 관리체계에 대한 소외 심리와 신경증, 의식을 쫓이는 듯한 시계에 대한 강박증을 보여주는 시다.

#### IV. 근대 지식으로서의 의학과 질병의 심미성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葡萄순이 기여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여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 쉬노니, 박나비 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發熱> 전문

21) 이진경, 앞의 책, 57~61쪽 참조.

일제하 서구적 의료체계의 도입에 의해 조선사회는 민간요법과 한의 학체계를 서구 근대적 의료체제로 대체하게 된다. 이제 신체는 부모의 혈연적 매개로서의 물질성이라기보다는 근대 의료과학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개체적 물질성으로 여겨지게 된다. 대한결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제시대 한반도 질병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균성 전염병의 창궐이다.<sup>22)</sup> 지용의 시 <유리창1>이 어린 딸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위 시는 발열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몸을 보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화자의 급박함을 드러낸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으로 설명될 때 근대는 시각감각의 재편성을 통해 주체의 시선으로 새롭게 확립된다. 세균의 존재는 생로병사가 과학적으로 증명가능한 가시적 영역으로 포섭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sup>23)</sup>. “포도순이 기여나가는 밤” “더운 김”처럼 “애 몸이 또 달어 오르”는 밤, “가쁜 숨결을 드내 쉬”는 아이의 머리맡 “주사 찌은 자리에” 화자는 입술을 붙이고 중얼거린다. 지용이 천주교신자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 너무나 급박한 마음에서 시인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多神教徒와도 같이” 중얼거린다. “애가 애자지게 보채”는 밤, 발열의 긴박함은 근대적 병과 치료와 위생의 체계 속에서 시적 화자의 분열증적 면모를 보여준다. “별들이 참별”처럼 날아오르는 듯한 환각과 정신의 혼미, “주사 찌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중얼거리는 화자의 신경증은 “불도 약도 달도 없”이 고열을 앓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막막함 속에서 생겨나는 현기증과 발열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조선=불결=질병/서구=근대의료=위생’의 경계에서 “다신교도”처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정신분열증적 이상 징후로 나아간다. 질병

22) 대한결핵협회 편(1998), 『한국결핵사』, 대한결핵협회, 1998, 194쪽. 이 시기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은 콜레라, 이질, 두창, 결핵, 성병 등이었다. 결핵은 1930년대에 환자수가 50~60만에 이르렀고 한 해에 조선이 5~6만이 이 병으로 죽어갔다.

23) 김미영, 「일제하 한국근대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글』 37집, 우리말글학회, 2006.8. 332쪽.

은 근대/전근대 사이 길항과정에서의 신경증을 드러내는 상징적 매개가 된다. 여기서 ‘별-참별’ ‘혼절적인 중얼거림-다신교도의 광적인 기도’라는 시적 은유가 발생한다.

193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엄마의 말뚝>에서 비근대적 전통 의학 때문에 남편을 잃게 된 ‘엄마’가 근대적 지식을 자녀들에게 습득시켜가는 과정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소설에서 진행되듯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이행기에서의 신경증은 우선 ‘질병’에 대한 서구 의학적 접근, 유리창(안경알)의 날카로운 반사 빛이라는 매개로 등장한다. 이는 근대에 대한 매혹이자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이중적 전제를 담보하게 한다. 이러한 이중성 속에서 질병은 붉은 꽃처럼 만개하는 도시의 불빛으로 감각화된다.

“눈보라는 꿀벌떼처럼/닝닝거리고 설레는데/어느 마을에서는 紅疫이躑躅처럼 爛漫하다.”

(<紅疫>)지용사에서 ‘붉은 빛’은 앞에 <지는 해><저녁 햇살>에서 보았듯 불온한 환각의 신경증을 대변하는 것이다. 눈보라가 꿀벌떼처럼 닝닝거리는 감각적 겨울밤에 “紅疫이 躑躅처럼 爛漫하”는 황홀한 불안감은 신경증이야말로 오히려 심미적 근대성을 가능하게 하는 과민의 감각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내어다 보니  
아조 캄캄한 밤,  
어험스런 뜰앞 잣나무가 자꼬 커올라간다.  
돌아서서 자리로 갔다.  
나는 목이 마르다.  
또, 가까이 가  
유리를 입으로 쫓다.  
아아, 항안에 든 金붕어처럼 갑갑하다.  
별도 없다, 물도 없다, 쉬파람 부는 밤.  
小蒸汽船처럼 흔들리는 窓.

透明한 보라 t 빛 누워알 아,  
 이 알몸을 끄집어내라, 때려라, 부룻내라.  
 나는 熱이 오른다.  
 뺨은 차라리 戀情스레히  
 유리에 부빈다, 차디찬 입마춤을 마신다.  
 쓰라리, 알연히, 그짓는 罨響 -  
 머언 꽃!  
 都會에는 고흠 火災가 오른다.

〈琉璃窓2〉 전문

식민지 시기 지식인의 질병은 주로 신경쇠약이었다. 캄캄한 밤 화자는 “뜰앞 잣나무가 자꼬 커올라가”는 듯한 환각을 본다. “돌아서서 자리로 갔”지만 목이 마르다. “또, 가까이 가/유리를 입으로 쫓다”. 유리창에 갇힌 화자는 어항에 담긴 “금붕어처럼 갑갑하다”. 도시의 밤, 방안이야말로 과민한 주체의 자의식과 신경증이 극도로 달하는 공간이다. “별도 없”고 “물도 없”고 “쉬파람이 부는 밤” 적막한 밤, 유리창안 방안은 “小蒸汽船처럼 흔들리는” 항로 위의 작은 배와 같다. 열이 오르며 불안과 공포와 자학적 공격에 시달리는 화자는 격렬한 신경증적 강박 속에서 “알몸을 끄집어내라, 때려라, 부룻내라”라고 비명을 지른다. 발열의 극한에서 유리창의 차기움에 기운을 얻고자 한다. 창문 밖 유리창에는 “고흔 火災”가 “머언 꽃”처럼 피어난다. 지용 시에서의 이 붉은 이미지, 발열, 꽃(“紅疫이 躑躅처럼”〈發熱〉), 화재(“날리났나 불이 났나”(지는 해)이)미지는 극단적이고 모호한 불안과 공포의 표징이라 할 수 있다. ‘발열’ “紅疫”은 ‘붉은 꽃(“躑躅”)’으로 비유되면서 관능화, 심미화된다. 근대의 절서처럼 주체를 위협하는 도회의 불빛은 일종의 강박적 불안의 기표가 되었던 것. 목마른 갈증, 금붕어처럼 유리에 입을 쫓는 행위, 발열로 온몸이 부어오른 과정들은 신경쇠약이 육체적 질병과 더불어 정신적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도회문명은 프로이트가 <에로스와 문명>에서 언급한 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문명의

억압은 병리적 신경증의 확산을 더 증대시키는 것.

지용의 신경증은 ‘유리창’을 통해 방안과 방 바깥의 공간을 구분하고 ‘유리’의 광물적 차가움 속에서 외부의 객체와 내부의 주체 사이의 의식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落葉 벗은 山莊 밤 窓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뉘니 후 두 두 두 落水 짓  
는 소리 크기 손바닥만한 어인 나뭇가 따악 붙어 드려다 본다 가엽서라  
열리지 않는 窓

주먹쥐어 징징 치니 날을 氣息도 없이 네 壁  
이 도로혀 날개와 떠다. 해발 五天呎 우에 떠도는 한조각 비맞은 幻  
想 呼吸하노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自在 畫 한 幅은 활 활 불피여 담기  
여 있는 이상스런 季節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여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앓을가 무섭어라

<나뭇>중에서

근대의 유리창은 간혀있는 내부에서 외부에 대한 ‘시선’을 탄생하게 한다. 외부로의 시선은 거리의 산책으로 이어지고 ‘풍경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지용의 과민한 의식은 이상과 박태원처럼 거리로 나가 배회하지 않고 대개 ‘방안’ 공간이라는 자의식적 공간에 갇혀 있으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방안’과 ‘방 밖’이라는 내부와 외부 사이 경계에서 침체화된다. 방안/방 밖의 장소적 구분은 곧 ‘내면의식/현실세계’라는 의식구조를 공간화한다. 근대 유리창이 제공하는 것은 보는 자로서의 ‘특권적 지위’인 바 보는 주체는 타자에 대한 응시로서 ‘주체적’ 지점을 지니게 된다.<sup>24)</sup> 근대적 시선 체제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의 시점을 형성하면서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정지용 시에 나타나는 ‘유리창’ 시리즈(<유리창1,2>), 갇힌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자의 시선(“砲彈으로 뚫은듯 동그란 船窓으로/ 눈썹까지

24)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113~116쪽 참조.

부풀어 오른 水平이 엮보고, <海峽> “琉璃도 빛나지 않고/窓帳도 깊이 나리운 대로-” <紅瘦> “잠살포시 깨인 한밤엔/창유리에 붙어서 엮보노라. <별1>” “뜨인 눈에 하나치는 영창” <달> “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琉璃窓1>)은 내부 고정점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포착하려는 ‘주체형성’의 시선이다. ‘유리’는 밖을 보는 매개이면서 동시에 밤이 되면 거울로 변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작동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인식이라는 성찰적 반성적 근대시선의 체제라 할 수 있다. 이상과 박태원의 시선이 외부와 바깥의 순환 반복운동 속에서 빚어지는 불안의 순환운동이라면 정지용의 경우 시선은 타자의 응시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의의식을 작동시키는 자아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나르시시즘적 고찰이다. 시적 화자는 “山莊 밤窓유리”에 “손바닥만한 어인 나비가 따악 붙어”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본다. “열리지 않는窓”을 향해 “주먹쥐어 징징 치는” “날을 氣息도 없이” 날개로 떠는 이상한 “비맞은 幻想”.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는 이 이상한 나비에 대한 불안증은 곧 대상 응시에서 비롯되는 주체 해체의 불안증이기도 하다. 이때 ‘손바닥만한 나비’는 “비맞은 幻想”으로 비유되며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는 불안증의 상징으로 상징화된다. 결국 ‘유리창’은 외부와 내부를 단단하게 차단하면서도 투명한 투시력으로 시각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중적 매개인 바 지용은 이 ‘유리창’이라는 근대적 매개를 통해 자아인식과 동시에 자아해체를 경험한다. 이는 근대주체의 위기이자 정립이자 불안한 자아의 강박적 시선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신경쇠약의 시적 형상화 방식은 식민지 근대성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을 암시한다. 즉 그것은 도시지식인의 예민하고 위험한 징후이면서 근대화의 표지이다. 정지용은 이와같은 과잉된 신경증으로서 식민지 근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상징화하고자 한다. 당대 유행하던 신경쇠약이라는 애매한 질병을 시 안에서 문학적 신경증으로 전이하면서

시대에 대하여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반응하고자 한 것이다.

## V. 결론

1930년대 심리주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지식인이며 이들은 대개 병리적 개인으로 불안증, 좌절과 절망, 무기력과 방황, 고독감을 앓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정신분열, 퇴행과 퇴폐, 실존의 고통으로 나아갔다. 최명익, 최서해 등의 작품에서 불행한 생활 상실자인 지식인들은 그로테스크한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병리적 개입임을 드러낸다. 방황과 퇴폐, 신경증은 소설 텍스트에서 지극히 주관적 ‘관념의 나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상 시는 언어적 실험성, 파편화와 몽테쥬적 중첩을 드러낸다. 일본 유학 당시 일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정지용은 모더니즘적 개인, ‘내면화된 현실’이라는 자아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조선현실 ‘강제된 근대화’에 대한 ‘심리주의적 방식’을 드러낸다. 이미 <카페프란츠>에서 근대적 공간 카페에서의 분열증적 불안을 암시한 바 있다. 지용은 식민지 근대라는 왜곡을 직면한 식민지 지식인 청년으로서 이상 징후인 ‘신경쇠약’ ‘신경증’을 시에서 보여준다. 정지용은 시에서 당시 근대지식인의 병리적 징후로서의 신경증 담론을 ‘지적 반응’의 신경증으로 언어화 하고자 했다. 지용은 당대 신경증 담론을 전유하여 시를 쓰면서 시어의 어구 배치와 은유를 가져왔다. 지용 시에서 신경증 징후는 시창작 방식으로서 모더니즘적 자아의 분열증과 동시에 시대에 대한 시적 전략과 표명이었다 할 수 있다. 지용의 신경증의 시적 은유들은 피처럼 붉은 색 이미지, 발열, 현기증, 근대적 기계와 매개로 상징화 되면서 식민지 근대의 병리적 이상심리를 보여준다. ‘시계’ ‘유리창’ 이미지는 근대 기계, 광물질적 매개이자 동시에 식민지 규율권력의 상징적 은유이다. 시인은 시계와 유리창, 질병 등을 통해 근대의 매혹과 환멸이

라는 현기증과 발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붉은 이미지에 대한 환각과 시계의 초침소리에 대한 신경쇠약은 근대화에 대한 매혹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질병에 대한 태도는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적 교육과 과학 문명의 결합을 상징하는 근대적 의료지식의 구비를 계층적으로 구분지음으로써 근대적 지식으로 인한 신분변동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sup>25)</sup> 만들었다. 질병의 이름과 병원을 둘러싼 외래어는 조선인의 신체와 의식 뿐만 아니라 근대지식의 습득 유무에 따른 계급적 구분을 재편성하게 하였으니 근대 지식인의 신경쇠약은 근대적 지식과 식민지 현실의 타자화 사이에서 길항하는 근대지식인의 표징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리적 이상성, 신경쇠약 질병의 문제는 단순 병리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대 사회와 관련성이 있다. 식민과 근대라는 이 두 가지의 이질적인 것과의 대면은 의식의 극단적 착중현상을 일으키며 개인을 극단적 불안증, 공포증, 과민한 자의식으로 몰아간다. 요컨대 신경증은 ‘근대지식’의 표징이면서 지식인의 계급적 표식인 셈이다. 정지용 시에서의 ‘붉은 색’의 상징성, 예민한 감각과 비유(“琉璃안에 설레는 검은 꿈” “항안에 든 金붕어” “躑躅”같은 “紅疫”의 만발, “머언 꽃” “도회의 火災” “小蒸氣船”처럼 흔들리는 창) 등은 정신병리적 자아의 필요이상의 과민, 집착, 이상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일제하 신경쇠약에 걸린 문학적 개인은 미적 근대성이라 할 수 있는 ‘심미화된 미의식’을 발견하는 극단적 분기점이 된다. 시에서 신경증이라는 심리주의적 방식은 자의식을 더욱 예민하게 함으로써 근대적 극주관성의 심미성, 감각성을 확보하게 하는 미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용 시에서의 정신 병리적 탐구는 지용 시가 구사한 모더니즘 문학의 미적 자의식, 심미적 근대를 추적하는 한 지점이 될 것이다.

25) 김미영, 「일제하 한국근대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글』 37집, 우리말글학회, 2006.8. 332쪽.

주제어 : 신경증에 대한 지적 반응, 전략으로서의 시창작 방식, 모더니즘  
자아의 불안증, 심미적 언어와 병리적 이상심리

## 참고문헌

- 김명옥, 「정지용 시에 나타난 현대문명과 도시성」, 『비평문학 제 12호』, 한국비평문학회, 1998.7.
- 김미영, 「일제하 한국근대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글37집』, 우리말글학회, 2006.8.
- 김용희, 「정지용 시의 데카당티즘과 지적 허무」, 『정지용 시의 미학적성』, 소명출판, 2004.
- 대한결핵협회 편(1998), 『한국결핵사』, 대한결핵협회, 1998.
- 류소영, 「정지용, 무서운 시계에 대한 한 읽기」, 『시와시학 통권18호』, 시와시학사, 1995년 여름호.
- 사나다 히로코, 「鄭芝溶 후기 散文詩의 象徴性과 社會性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제10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6.
- 서정주, 『서정주 문학 전집 5』, 일지사, 1972.
-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메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 안종길 「신경쇠약은 어떤 병인가-특히 청년기에 많은 영적 신경쇠약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4.2.26.
- 오성호, 「향수와 고향, 그리고 향토의 발견」, 『한국시학연구 7호』, 한국시학회 2002.
- 이경훈, 「오빠의 탄생-식민지 시대 청년의 궤적」,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3.
- 이광수, 「문사와 수양」, 『창조 8호』, 1921.
- 이선이, 「정지용 후기시에 있어서 전통과 근대」, 『우리문학연구제21집』, 우리문학회, 2007.2.
- 이수정, 「정지용 시에서 ‘시계’의 의미와 ‘감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1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2.12

이진경, 『근대적 시, 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이형권, 「정지용 시의 ‘떠도는 주체’와 감정의 차원-시적 자아의 이국정  
조와 슬픔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 19집』, 한국문학  
이론과비평학회,

정지용, 「朝鮮詩의 反省」, 『문장 27호』, 1948.10.

한만수, 『모더니즘문학의 병리성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2.

C.Hanscom, 손광수 역,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박태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29  
집』,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Massal Burman, 윤희병, 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Abstract>

## Review on Nervous Breakdowns and Linguistic Aesthetics Appearing in Poems by Jung Ji-Yong

Kim, Yong-Hee

Most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psychological’ novels in the 1930s, were intellectuals. They suffered from pathological factors such as a sense of anxiety, frustration, despair, helplessness, dejection and loneliness.

Furthermore, they went so far as to be attacked by schizophrenia, regression, deterioration and pain of survival. Appearing in the works by Choi Myung-ik and Choi Seo-hae, unhappy intellectuals with inability in surviving show their pathological factors by making their repetitive grotesque statements.

Frustration, deterioration and nervous breakdowns were portrayed as extremely subjective ‘categories of idea’ in a novel text. Poems by Lee-Sang Poet demonstrated a complex of linguistic experimentalism, fragment, and Montet -style elements. Jung Ji-yong Poet began to accept ego and sentimental world called ‘modernistic individual’, and ‘inner reality’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Modernism, when he studied in Japan, revealing what’s called ‘psychologism’ as to ‘coerced modernism’ in the reality of the Josen Dynasty. Through <Cafe Franz>, one of his works, he already suggested schizophrenic anxiety in a modernized place of cafe. Jung Poet showed in his poems that he

had got his abnormal psychology, namely, ‘nervous breakdowns’ or ‘neurosis’ as a young intellectual, who faced the distortional, colonized and modernized society.

Jung Ji-yong Poet tried to put in linguistic expression of ‘intellectual neurotic response’, the discourse of his neurosis, one of pathological symptoms that modern intellectuals had at that time. He described poetic phrase and metaphor in his poems, based on the contemporary discourse of neurosis. In his poems, neurotic symptoms can be mentioned as schizophrenia of modernistic ego and at the same time, poetic strategy and demonstration as a way of poetic creation reflecting the situations of those time. Seeing Jung’s poems, poetic metaphor styles as to ‘neurosis’ were symbolized as ‘blood-like red images’, ‘seizure’, ‘dizziness’, ‘modernized machines’ and ‘medium’, showing his pathological and abnormal psychology in the colonized and modernized era. Images such as ‘clock’ and ‘window’ were associated with the modernized machines and physical medium, and at the same time, symbolic metaphor of colonized rules and power. In other words, the poet was faced with dizziness and seizure connected with disenchantment and disgust for the modernized era, by means of clock, window and symptoms.

Key Words : Intellectual neurotic response, Strategy of poetic creation way, Modernistic ego, Aesthetic language and Pathological abnormal psychology